

나무와 돌이 함께 숨을 쉬는 온화하고 절대적인 공간에 우뚝 선
세계적인 가구 작가 최병훈. 그는 자신의 껍질을 깨기 위해 노력한 끝에 구상한 신작으로
뉴욕 갤러리 '프라이드만 벤다'에서 러브콜을 받아 10월 중순에 열린 'PAD 런던 페어'에 이어
11월 14일에 열리는 뉴욕 '더 살롱 아트 디자인 페어'에 참가한다.
또 내년 2월에 뉴욕 프라이드만 벤다 갤러리에서 신작으로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가구 디자이너 최병훈 돌과 나무를 품은 절대적 공간

국내에 '아트 퍼니처'를 소개하고, 한국적인 자연미가 깃든 예술적인 의자로 유럽 예술계를 평정했던
가구 디자이너 최병훈. 몇 년간의 공백을 깨고 혁신적인 신작을 가지고 등장했다.
“이제야 참맛을 알았어. 이젠 뉴욕으로 가야지. 아직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
내년 2월 뉴욕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구상하는 데 분주한, 자신감에 찬 눈빛을 지닌 그를 만났다.



1
2



오랜만에 최병훈 작가를 마주한 곳은 론 아라드, 알레산드로 멘디니 등 세계적인 작가가 참여한 청담동 '더 페이지 갤러리'에서 〈Anything, Something〉 가구 전시였다. 그는 이 전시에서 혁신이라 해도 좋을 만큼 변화된 신작을 공개했다. 이와 동시에 백자은갤러리에서도 최병훈 작가가 참여한 4인의 아트 퍼니처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나무와 돌, 두가지 이질적인 재료가 하모니를 이루는 기존의 예술적인 의자 작품은 화려한 멋은 없지만 늘 곁에 두고 싶은 평화롭고 안락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번 자연석을 위주로 한 신작은 비범한 내면의 기운, 세월이 만든 내면의 무게가 더욱 강하게 전해집니다. 머리는 회곳해져도 눈은 상대의 내면을 비출 만큼 더욱 투명하게 빛나는 선생님의 포스가 전해지는 작품이죠.” 백자은 관장은 그의 신작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마치 화선지에 일필휘지로 ‘一’ 자를 쓴 듯 갤러리 한가운데 놓여 있는 돌 벤치. 세월을 입은 돌의 묘한 색감은 계속 들여다보고 싶게 만든다. 돌은 어디서 왔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겪었을까? 과연 문득 그가 신작을 완성하기 위해 지내던 거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궁금해졌다.



3

끝이 아닌 시작을 위한 통로

파주 출판단지 근처에 위치한 최병훈 작가의 공간은 마치 숲 속 동굴 같았다. 그곳은 목공 작업실과 갤러리처럼 그의 과거를 더듬을 수 있는 작품이 가득한, 12년 전에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지은 건물. 주차장에는 런던행, 뉴욕행 화물선에 그의 작품을 싣기 위해 기다리는 대형 트럭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 실내에는 작품 포장과 배송 작업으로 어수선했다. 사실 최병훈 작가는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에 작품이 영구 전시될 만큼 유럽 시장에서는 성공 궤도에 올랐지만, 유독 미국만큼은 인연이 닿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신작 발표와 함께 론 아라드, 아이웨이웨이 등 세계적인 작가가 소속된 뉴욕 갤러리 프라이드만 벤다에서 리브콜을 보내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 그는 수년간 반복해온 작업의 틀을 깨기 위해 이곳에서 문화 정체성, 자기 정체성, 보편적 가치, 독창성 등에 관해 탐구하고, 굳은 마음의 축수를 예민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작했다.

2층에 오르자 정면으로 거대한 돌이 나무를 머리에 이고 있는, 고인돌 같은 그의 대형 라운지 테이블 작품이 나타났다. 테이블 옆에는 그의 절친인 사진작가 배병우가 경주의 왕릉에 그의 작품을 두고 찍은, 가슴 먹먹해지는 대형 사진 작품 한 점이 걸려 있었다. 하루 종일 포장, 배송 작업에 시달렸음에도 그의 얼굴은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문명의 시초인 페루, 멕시코부터 네팔, 북유럽의 땅끝까지 모험을 즐기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여행도 자주 했어요. 각종 해외 아트 페어, 전시는 놓치지 않고 모두 다녔는데,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아니시 카푸어의 전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아! 끝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다시 출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1 2층에는 그의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대표 작품이 놓여 있어 그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다. 2 늘 앞선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던 개척자 같은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작품집이 서재에 빼곡하다. 3 그는 여행을 다니면서 구한 민속 토속품에서 깊은 영감을 받는데, 특히 아프리카 토인 장식품은 호기로운 젊은 시절이 떠올라 가장 아끼는 아이템이다. 4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받은 그의 예술 작품 같은 의자와 골동 수집품들. 5 작품 대부분이 틀을 갖추는 1층 작업 공간. 빼곡히 들어찬 나무들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4
5



“지금은 돌에 빠져 있지만 다음에는 다시 나무 작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아예 전혀 다른 물성을 찾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저를 조각가라 부르지만 저는 미완성 작가라 말하고 싶거든요. 집도 마찬가지로요. 늘 미완성의 공간처럼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작가들이야 일이 곧 생활이니 굳이 경계를 두고 긴장한 상태로 작품에 임할 필요는 없어요.”



감수성 깊은 모험 가득한 공간

최병훈 작가는 여행을 하며 바랜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돌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는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 돌을 모두 사서 동굴로 돌아왔다. 그의 집 거실에는 생김새가 모두 다른 돌들이 진수성찬처럼 널려 있다. 돌은 산에서 쪼개진 존재라, 하나의 돌은 자연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얼굴이란다. 그는 사라진 국내 절터를 찾아 역사를 품은 돌을 마주하고 기록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모습이 변하지 않는 돌에서 지조와 진중함의 미덕이 느껴지지 않나요? 옛 선비는 장수와 불변의 상징인 돌을 모으는 수석을 취미로 즐겼죠. 이것이 벤치인지 아니면 오브제인지는 보는 이가 결정하는 것. 작품이 뭘 함축하고 있는지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걸 단어로 표현해버리면 의미가 새처럼 날아가버릴 것 같거든요.”

2층 개인 공간은 스튜디오처럼 벽이 없는데, 거실 곳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은 돌과 골동품, 그리고 지난 작품들이 시간순으로 드문드문 놓여 있고, 상념이 들 때마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캔버스와 화구 통도 놓아두었다. 가장 흥미로운 공간은 서재다. 책장에는 과거를 추측할 수 있는 그의 사진과 지인들에게서 선물 받은 각종 아트 작품 사이로 해외 인테리어 트렌드 잡지가 꽂혀 있고, 독일 바우하우스의 전화기, 슌때 문은 타자기 등이 신형 애플 노트북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시공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서재를 보니 두터운 경험자의 아카이브답다는 생각이 든다. 발이 차일 듯 두서없이 놓인 돌과 나무들을 보고 비단 그 색감이 나 형태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다. 나무처럼 포근하고 돌처럼 웅숭 깊은 마음을 배우는 일이기도 하다. 그는 마음이 복잡하고 작품이 잘 풀리지 않으면 곰곰이 돌을 쓰다듬어본다. 직접 생명을 만나고 애정을 기울이는 시간. 어찌 보면 그는 ‘자연이 해놓은 일에 구멍 하나 낸 것뿐’이라며 웃는다.

최병훈 작가는 수년째 아침 일찍 일어나 수영과 트레이닝으로 몸을 다진다. 체력이 정신을 따라잡지 못하면 더 이상 진일보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 “사람들은 편안히 쉬고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왜 고달프게 작업에 매달리냐고 물어보는데, 어디 예술가에게 은퇴란 것이 있던가요? 늘 현재진행형 작가일 뿐.” 그는 본인을 조각가라 부르지 말아달라 했다. 늘 출발점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에 맞게 행동할 수는 있어도 생각에 한계를 두는 일은 없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감수성과 모험심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감수성이란 일상적인 돌과 나무도 낯설게 만드는 능력.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감성의 축수를 예민하게 다질 수 있는, 밤에는 꿈꿀 수 있는 동굴이 되고 낮에는 빛을 따라 길을 나설 수 있는 열린 동굴이 되는 자신만의 절대적인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촬영이 끝나자 그의 신작을 실은 트럭이 출발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아마도 몇 년간의 동면에서 깨어나 세계를 확보할 황홀한 봄이 그에게 일찌감치 찾아온 것 같다. **문** 글 계안나 기자 | 사진 이우경 기자

1 그는 벽면에 국내 지도와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다녀온 곳을 표시해 두었다. 죽을 때까지 세계를 여행하며 낯선 것을 체험하고 접목하고 싶은 마음이다. 2 거실 한쪽에 놓인 캔버스에는 그가 직접 본인의 작품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다. 3 과거와 미래의 자료가 총집합되어 있는 최병훈 작가의 서재. 나무 테이블 위에도, 책장에도 돌은 실과 바늘처럼 놓여 있다. **왼쪽 페이지** 2층 개인 공간에서 1층 작업실로 이르는 계단. 계단 주변에는 전시 포스터와 지난 작품의 미니어처들이 놓여 있어 마치 개인 박물관 같다.

